

# 다문화가정 자녀교육 지킴이

## 광주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 미취학 및 초등학생 대상 학습 지도

광주 불교계가 다문화가정을 위한 학습 지원사업을 펼친다.

광주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센터장 이주성)는 4월부터 다문화가정의 미취학 자녀 및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글 교육과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학습지도 실시한다. 이번 다문화가정아동 한글학습지원서

또한 광주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는 이 프로그램을 위해 좋은세상(대표 김진희)과 함께 다문화가정 20가구를 선정해 1년간 1200만원을 후원한다.

2007년 설립된 광주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는 불교외국인 단체로 다문화아카데미, 외국근로자 한국어, 문화교실, 체육대회, 우리음악페스티벌, 법률상담, 한방무료진료, 불교문화체험, 템플스테이 등을 진행한다.

광주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는 또 외국인근로자들의 편안한 쉼터를 지향한다. 광주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언제나 센터를 방문해 국내 생활에서 겪는 각종 어려움을 지역 주민들과 연계해 풀어갈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 해 7월에는 형편이 어려워 고향을 찾지 못하는 광주 지역의 결혼 이주 여성과 남편 등 세 가족의 고향 방문을 추진했다. 이 행사는 50여 가족이 신청하는 등 결혼 이주 여성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었다.

이 밖에도 광주 무각사 대웅전에서 스리랑카의 가장 큰 종파인 아스기리아 종의 종정 부타라카따 큰스님을 초청해 대법회를 갖는 등 광주 지역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광주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가 다문화 가정 자녀들의 학습지도도 지원한다.

이주성 광주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장은 “우리의 미래인 자녀들에게 올바른 교육 기회와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은 우리가 같이 고민해야 될 문제이다”라며, “이번 사업은 다문화자녀들이 큰 차별 없이 한국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됐으며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고 설명했다. (062)962-3395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 다문화가정 부모 부담 경감 위해 추진 차별없는 우리사회 구성원 성장 목표

비스는 한국어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가정 부모들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마련됐다.

이 프로그램은 1년간 1대 1 맞춤형 멘토링 서비스 형태로 진행된다. 현재도 눈높이 교사들이 1년간 다문화가정을 방문해 지속적으로 학습지원을 돕고 있다.

다문화가정의 경우 어머니의 한국어능력이 부족해 아이들이 한국어를 제대로 배우기 힘들어 취학 후에도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이번 학습지원사업은 다문화가정 미취학 아동들의 한글 활용능력 향상을 도와 자신감 형성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자연에서 배우는 부처님 가르침

### 광주전남환경연대, 어린이생태학교 개최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부설 광주전남 어린이생태학교는 4월 23일부터 열리는 이번 생태학교에서는 진돗개사업소 견학, 쌍계사 저널공방, 108배, 진도아리랑 등 민요배우기, 등산로 트레킹, 진도해양생태관 관람 등이 진행된다. 특히 이번 생태학교에서는 웰빙 간식이 제공되며, 아이들은 게임이나 음료수, 과자 등을 가져올 수 없다.

월 9일에도 부안 월명암으로 제6회 생태문화기행을 다녀왔다. 전북 부안 내빈산 일대의 월명암과 변산해수욕장을 찾은 이번 기행에는 법일 스님, 정법도 공동대표를 비롯해 30여명의 어린이가 참여했다. 월명암은 한국의 유마거사로 알려진 부설거사의 유혼이 서린 유서 깊은 고찰이다. 이날 기행에 참가한 아이들은 월명암 정상에서 바라본 산자락의 멋스러움에 도시 생활에 지친 마음을 씻어냈다.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임수연 사무처장은 “이번 프로그램은 어린이들에게 사찰과 자연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기 위한 것이다. 사찰에서 지내면서 불교와의 인연도 심어주고, 도심에서 벗어나 사찰 주변의 훌륭하고 다양한 자연 생태환경을 통해 심신의 안정을 돕고자 한다”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이에 앞서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는 4

## 금산사, 호국 장영사 수계 법회



김재 금산사(주지 원행)가 임실 제6탄 약창(장장 강재구 대령) 호국 장영사 불자장병에게 미륵십선계 수계 법회를 봉

행했다. 4월 10일 이원일 사무국장의 사회로 금산사 방등계단에서 진행된 수계법회는 황병구 소령의 장교 10명과 김대환 상병(2중대) 등 사병 160명 등 총 170명이 미륵십선계를 수지했다.

원행 스님은 장병들에게 미륵십선계를 설한 후 법문에서 “사회에 복귀해서도 항상 계를 염두에 두고 수행 정진하는 참 불자가 돼달라”고 당부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 광주생명나눔, 환우 돕기 음악회

생명나눔실천 광주전남지역본부(본부장 현지, 이하 광주생명나눔)는 4월 9일 무등산 입구 문빈정사 앞에서 흥보가수 주권기씨를 비롯한 무등 예술단 회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길거리 음악회를 열었다. 특히 이번 길거리 음악회에는 방송통

신대 학생 20여 명이 자원봉사로 참여해 현악현악, 백악명 환우 모금을 진행했다.

한편, 광주생명나눔은 매월 둘째주 일요일 무등산 입구에서 시민을 위한 길거리 음악회와 생명나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 부루나존자를 찾아서

## “지역민과 화합하며 회향할 것”

### 마을 내 어려운 이웃 보살피는 정음 보림사 보림불공회

예로부터 칠보영산으로 불리워 온 칠보산 중턱에 위치한 보림사는 서기 864년(통일신라 경문왕4년)에 신라 구산선문의 하나인 장흥 가지산 보림사의 개산 조 도의 국사의 법손 보조제종 선사(普照體澄 禪師)의 上足(수제자)인 정환법사(淸煥法師)에게 명해 창건됐다.



주지 석우 스님(사진 좌)과 지성 스님

보림사에서는 신도들과 함께 ‘보림불공회’라는 봉사단체를 만들어 마을마다 어려운 이웃들을 보살피고 있다. 때마침 봉사준비로 바쁜 지성 스님과 석우 스님이 반갑게 맞이 했다.

“산골 마을 주민들은 도시보다도 의료 시설이나 편의 시설이 부족해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니다. 작은 절이지만 지역민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며 회향을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보림불공회를 조직하게 됐습니니다.”

2003년 11월 보림불공회를 처음 조직한 지성 스님의 회고다. 당시 주지였던 지성 스님은 1989년 부임 후 수행과 포교에 전념해오다 지역민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야겠다는 열력으로 운영위원 4명과 함께 1구좌당 1만원 정도의 작은 금액으로 보림불공회를 시작했다.

보림불공회와 보림사는 마을이장의 추천을 받아 14개 마을을 돌아가며 독거노인들에게 생활비 10만원과 생활필수품, 쌀을 전달하기 시작했다. 이들의 활동은 어느새 9년째다.

현재는 현주지인 석우 스님과 지성 스님이 공동으로 불공회를 이끌고 있으며 회원들도 그 사이 70명으로 늘어났다. 매년 1500만원 이상을 어려운 이웃들에게

회향하고 있으며 그동안 집행한 금액만 해도 1억2000만원이 넘는다.

그뿐만 아니라 정부로부터 보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차상위 계층의 중고등학생 10명을 선정해 아무도 모르게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다.

2002년경에는 한글을 깨우치지 못한 어르신들이 상당수 되는 것을 확인하고 한글학교를 만들기도 했다.

이처럼 보림불공회기 활성화된 가장 큰 이유로 석우 스님은 재정공개 등 투명한 운영을 꼽았다. 후원회 임원을 맡고 있는 시현보살, 보리행보살, 감로행 보살 등은 매년 6월과 12월 결산보고를 통해 재정 상태를 우편으로 회원들에게 통보하고 인터넷 카페를 통해서도 수시로 공개하고 있다.

끝으로 불자들에게 전해줄 말이 없다고 문자 지성·석우 두 스님은 이구동성으로 동체대비 사상을 실천을 강조했다.

“보림불공회의 정신은 부처님의 동체대비 사상 실천입니다. 신도들에게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야 한다고 강조하는 이 유도 보살정신을 실천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 대한불교조동종 종조 동산 양개 선사 차례제

대한불교조동종(총무원장 덕우)은 도지사 총무원에서 조동종 종조 동산 양개 선사 차례제를 4월 10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종정 지명 스님과 총무원장 덕우 스님 및 사부대중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봉행됐다.

한편 조동종은 3월 26일~ 4월 1일까지 선사 용왕 고흔 천도 수륙재 및 성지순례를 봉행 했다. 이날 조동종은 천안함 사태와 일본 지진 피해 희생자들을 위한 성금을 모금단체에 전달했다.

경남부지사장 청운 스님

## 대구 봉축위원회, 동자승 단기출가

대구불교총연합회는불기 2555년 부처님 오신날을 봉축하는 동자승 단기출가 행사를 4월 8일 팔공산 동화사에서 가졌다. 이날 대구시내 5개 불교유치원 원아

8명이 사발식과 수계식을 갖고 한 달 단기출가에 들어갔다. 동자승들은 봉축기간에 부처님오신 뜻을 알리는 홍보대사 역할을 한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 사찰 법당 앰프 설치전문

## 스님! 법당의 앰프 소리가 마음에 안드십니까? 지금 즉시 - 전화주세요...

소장 : 김문화(海月) 직설설치  
音響研究家 無線設備技師

(27년간 전국 870여 사찰에 설치)

DX-707 스테레오 앰프 300AN  
2Channel Stereo Mixing Amplifier Distal Echo

고장난 마이크 완벽하게 수리해 드립니다 !!

DX-707 스테레오 마이크

법당 전용 스피커

일반 마이크 V-606LC

고성능 탁상마이크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화 : 010-5335-2695 서울 양천구 신월 3동 48-9 종경빌딩 300호  
전화 (02)2697-9976 / 팩스 (02)2601-8284 홈페이지 www.yukosound.com

---

## 제20회 행원문화상 수상자를 찾습니다

본 재단은 불교문화 부흥과 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역경과 예술분야에 공로가 크신 분을 발굴하여 매년 시상하고 있습니다. 제20회 행원문화상 수상신청을 받고자 공모하오니 널리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시상 부문

역경상	시 상 내 용	인원	상금
예술포상	대장경을 비롯해 중요한 불교문헌을 현대어로 번역하신 분	2명	각 500만원
	1. 불교사상을 토대로 한 예술(음악, 미술, 연극, 무용)분야에서 업적을 이룬 분 (서화 부문 제외) 2. 방송, 연예활동을 통해 불교사상을 선양 홍보하고 대중교화(포교)에 이바지하신 분		

2. 시상 일  
2011년 9월 22일 목요일

3. 후보자 제출 서류

제출서류 : 본인신청 또는 추천서(소정양식) ..... 1부  
이력서(명함판사진 2매) ..... 1부  
공적서 및 증빙자료(최근 2년 이내 실적물) ..... 1부

4. 접수처 및 접수 방법

① 접 수 처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03-67 강남종합상가 10동 401호 계단 사무국 (우 137-877)  
② 접수 마감 : 2011년 6월 30일  
③ 접수 방법 : 직접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접수이메일 소인에 한함) / E-mail접수 : runner333kr@naver.com

5. 수상자 발표  
2011년 8월 중순 / 개별 통지 및 불교계 언론매체 발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계단 사무국 ☎ 02)586-6521~2, fax 02)521-9948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財團 行願文化財團  
法 人 行 願 文 化 財 團  
理 事 長 朱 永 云